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24주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오늘도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라는 말은 살던 방식을 바꾼다는 뜻이죠. 즉 지금까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느님을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 죄악과 세속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비유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았다는 것은 주님을 잊고 방황하던 우리가 회개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비유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목자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회개한 사람을 맞아들이시는 하느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은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의 양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큰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목자와 함께 있는 아무 탈없는 양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목자의 입장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큰아들 역시 아버지가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나 자신이 아흔아홉 마리의 양들에 속해있고 내가 바로 아버지 곁에 묵묵히 순종하며 지내는 큰아들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가요?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완벽하게 생활했기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아들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그냥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께 죄인들을 멀리하라고 감히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는 자문해 봅시다. 교회에서 봉사를 충실히 하고 있고 가끔은 자선도 베풀고 있으며, 또한 큰 죄는 당연히 피하면서 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아흔아홉 마리의 양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일미사나 교무금 등 교회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느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므로 큰아들이란 착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거나, 자신이 판단하기에 나쁜 행동만 일삼는 사람들이 나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김국진 가우텐시오 신부 | 봉곡동본당 주임

주일 진레

제 1 독 서	탈출 32,7-11,13-14
화 답 송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제 2 독 서	1티모 1,12-17
복 음	루카 15,1-32 또는 15,1-10

“관상적 대화”(Contemplative Dialogue)란 무엇인가?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머튼은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고, 자신의 시대의 확실성에 도전하였고,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새로운 지평을 연 사상가였다... 그는 또한 민족들과 종교들 사이의 평화를 증진하는 관상적 대화의 사람이었다.” 2015년 미국 의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연설 중, 토마스 머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머튼은 관상적 기도 안에서 새로운 하느님을 만났고, 이 만남은 자신의 시대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을 뛰어넘어 새로운 지평을 교회와 세상에 전해주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에게 관상적 대화의 사람이라고 칭한 것이다. 이는 종교 간 대화에서 관상적인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암시해 주고 있다. 기도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 자기-초월을 체험한 이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자는 기존의 세력에 저항을 받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다. 그렇다면 머튼의 시대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은 무엇이며 그가 기도와 관상을 통해 깨닫게 된 하느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가 말하는 ‘관상적 대화’란 과연 무엇일까?

토마스 머튼(1915~1968)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과 이 공의회를 마친 직후 혼란스러운 교회의 시기를 살았다. 앞서 공의회 이전 교회의 이웃 종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설명을 했듯이 머튼 역시 가톨릭교회에 대한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특히 수도승과 사제는 평신도에 비해 더욱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겼다. 어려서부터 무신론자에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가톨릭의 세례를 받고, 트라피스트 수도회에 입회하여 당시 교회의 가르침을 받은 그에게 그것은 당연한 태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공의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그는 1950년대에 이미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넘어 새로운 하느님관이 생겨났으며 1958년 루이빌에서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 수도승과 평신도의 차별 꿈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그가 깨달은 바에 따라 세상에 하느님의 목소리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웃 종교를 향해 자신을 개방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과 깊은 영적인 나눔을 시도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한 깊은 관상적인 체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소명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머튼은 깨달은 자의 책임감으로 관상에서 체험한 참된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의 목소리를 전하게 된 것이다. 당시 가톨릭교회만이 구원의 도구라고 생각하며 다른 종교인들을 이교도라 여기고 그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넘어 다른 종교인을 형제라 부르고 그들을 통해 배움을 얻고자 했던 변화된 머튼의 태도의 기초는 바로 기도와 관상이었다. 나아가 머튼은 기도와 관상으로 오랜 수행을 한 다른 전통의 종교인들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을 깨달았다. 깨달은 이들은 서로 통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머튼의 종교 간 대화의 기본 원리는 ‘관상적 깨어남(contemplative awakening)’을 통한 초문화적 성숙(trans-cultural maturity)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종교 안에서 깊은 수행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난 이들은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며 이원론적인 사고를 넘어 이웃 종교인들과 영적인 친교(Spiritual Communion)를 나눌 줄 알며 모두를 향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머튼은 인도 캘커타에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상적 대화는 반드시 긴 침묵과 오랜 기간의 명상을 통해 진지하게 영적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관상적 대화는 자기 자신의 수도승 전통 안에서 온전히 성실하며, 자기 자신의 종교적 공동체의 과거와 진지하게 접촉하며, 나아가 그 전통과 다른 공동체들에게 속한 영적 체험의 유산들을 향해 열린 존재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머튼은 자신이 말한 대로 다른 종교 전통의 영적 체험의 유산들에 향해 열린 존재였으며 이것은 그의 1968년 폴로나누와에서의 강한 영적 체험에서 나타났다. 불교 성지인 스리랑카의 폴로나누와를 순례하던 중 거대한 불상 앞에서 머튼은 ‘자신이 끌어 당겨져 소멸되는 듯한’ 신비적 체험을 한다. 이 체험을 통해 자신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분명하고 깨끗해졌다고 묘사한다. ‘모든 것이 자비요 모든 것이 비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이 종교를 초월하는 드라마틱한 체험은 성령의 은총이었으며 우리에게도 다른 종교 안에서도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성령은 불교 싶은 대로 분다(요한 3,8 참조).

기우杞憂 하나

이월춘 프란치스코 시인/ 가톨릭문인회

세상이 온통 초록의 향연으로 짙은 생명의 팔월이다. 나이 예순 줄에 거창 골짜기로 오미자 농사지으러 들어간 친구를 만나러 간다.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통영대전 고속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산청휴게소에 들렀다. 코로나 시대에 평일인데도 제법 번잡하다. 휴게소엔 형형색색의 아웃도어를 입은 사람들도 많다. 코로나 때문에 조선업을 비롯해 경기가 안 좋다고 매스컴마다 아우성이지만, 아무래도 거짓말 같다. 하긴 이 나이 되도록 경기 좋다는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으니, 사람들은 언제나 호들갑인가 보다 싶지만.

도시 근교의 맛집들은 언제나 손님들로 넘쳐나고, 텔레비전에서는 요리 관련 프로들로 가득하다. 일명 ‘먹방’이다. 사람들의 건강은 아예 관심조차 없고, 많이 먹고, 잘 먹고, 닥치는 대로 먹어야 살아남는다는 인상을 준다. ‘선찍후식’이라는 말도 있다. 먼저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다는 이 말도 식욕 절제와는 거리가 멀다. 건강하게 먹는 즐거움과 소중함은 어디로 가고 없다. 똥똥한 개그맨들이 대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고, 요리사 대신 셰프라는 말이 표준어가 될 정도다. 중고생들의 미래 직업 일 순위가 요리사가 된 지 오래다. 가히 막장 ‘먹방’이다.

생초 어탕국수 집에 들렀다. 내가 좋아하는 면 요리이기도 하지만, 얼큰한 민물고기 국물에 푹 국수 가득의 맛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근처를 지날 때는 꼭 들러 먹었던 음식이니 이날도 빠트릴 수 없다. 짐작은 했지만, 집 밖에까지 길게 줄을 섰다. 반 시간을 기다려 맛을 본다.

바야흐로 미식 열풍 시대다. 때마침 한류열풍이 불어 한식의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창조경제의 한 축이 된 미식의 대중화는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런데 온 나라를 휩쓰는 미식 열풍이 불안한 건 무엇 때문일까. 로마 시대도 배불리 먹다가 망했고, 브렉시트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영국도 에드워드 7세 때 이런 미식과 온천 열풍이 불어 대영제국의 종말을 불러왔던 적이 있다.

또 요즘 맛집 찾아서 즐기기과 한 축을 이루는 것이 건강 산업 붐이다. 텔레비전 프로 중 ‘나는 자연인이다’는 건강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 그야말로 자연을 벗하며 사는 낙원(?)을 보여준다. 거기다가 몸에 좋다는 식품이 하나 나오면 품귀 현상을 일으키는 정도란다. 나도 그런 자연식품에 관심이 많다. 건강에 관심이 많을 나이인데다 지병이 있으니까.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정치와 사회의 공공문제에 관심이 식어갈수록 식도락과 건강에 대한 이상 열기는 더 높아진다고 한다. 부디 별걱정을 다 하는 촌부의 기우이길 바란다. 육신의 건강도 그렇지만 정신의 건강, 나이가 영혼을 살찌우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새 교구청 비품 봉헌 안내

새 교구청에서 사용할 여러 비품을 봉헌 받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봉헌할 수 있으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10월 31일(월)까지
- 내용: 성물 및 전례용품, 사제관과 사무실 비품, 기타
- 문의: 신축 추진위 055·249·7121 또는 010·2741·7121
(※평일 09:00~17:00)

신축 교구청 카카오톡 채널 개설

후원 문의와 공사 진행 등 궁금한 점을
카카오톡 채팅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Ch 마산교구청 신축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QR코드 스캔→채널추가





본당순례

순교자 성월에는 더욱 뜨겁게, 한마음으로 양곡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숲속의 동화나라를 떠올리게 하는 양곡성당은 샛별어린이집이 한울타리에 있어 더욱 아기자기하다. 산비탈 빼곡한 꽃과 나무 사이에 자리한 성모자상과 예수성심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절로 은총의 향기가 흠뻑 가슴으로 들어온다. 본당 설립 당시에 심은 어린 느티나무는 이제 짙은 그늘을 드리우며 신자들의 충실한 쉼터가 되었다. 산으로 나무로 둘러싼 성당은 도심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낸다. 또한 성당 바로 앞을 흐르는 양곡천으로 하여 오고가는 교우들에게 청량함을 더한다.

본당주보는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성 정하상 바오로 동상이 손들어 반긴다. 양곡성당 본당주보는 교구 내에서 보기 드물게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다. 정약종의 아들이며 정약용의 조카로 가족이 온통 순교하여 신앙을 증거하였고, 어머니 유소사 체칠리아와 누이 정정혜 엘리사벳과 함께 103위 성인품에 오른 분이다. 정하상은 교회를 이끌 사제가 없을 때 실질적인 조선천주교의 지도자가 되었고, 역관의 종으로 위장하여 북경에 가서 조선에 사제가 오기를 청하였다. 그는 조선의 독립 교구 설치를 교황청에 청원하였고, 1931년 천주교 조선교구 설치에 이르게 되었다. 1836년에는 모방 신부가 조선에 입국했는데, 정하상의 집을 숙소로 삼았다. 이때 모방 신부는 앵베르 주교, 샤스탕 신부와 함께 선교사로 활동하며 신자들의 수가 늘어나자 정하상의 도움을 받아 조선인 신부를 키우고자 하였다. 앵베르 주교는 학식이 있고,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온 정하상에게도 신학을 가르쳤다. 기해박해가 일어나 1839년 9월 22일 정하상은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순교하였는데, 체포 직전 천주교 호교론서 《상재상서》를 저술하였다. 부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와 형 정철상 가를로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여 2014년 복자품에 올랐다.

9월을 사는 양곡성당 신자들은 더 뜨겁게 남다른 마음가짐이다. 순교자 성월에다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기해 본당의 날도 맞이한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요 몇 년은 조용하게 지내고 있지만, 해마다 순교자 성월에는 성지순례 등 특별한 순교신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보냈다. 본당 설립 25주년에는 정하상 성인의 동상을 세워 그분의 투철한 신심을 기리며, 선교정신을 본받고자 하였다.

40여 년 역사의 퍼즐

김용민 레오나르도 주임 신부, 박진태 스테파노 사목회장, 박희규 요한 부회장, 이종분 가타리나 부회장, 오기호 실베스텔 선교부장, 이지태 베르나도 전 부회장, 서영희 아네스 사무장이 사랑방에 모였다. 본당의 40여 년 역사 속에서 기억을 술술 되살려 내놓았다. 설립 때부터 몸을 담았다는 오 실베스텔은 건물을 가릴 정도로 무성하게 큰 느티나무가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뜰에 지켜 서서 드나드는 신자들을 반기는 성당지킴이가 되었다. 이 베르나도는 활기차



고 열정적이었던 초기 본당 공동체의 분위기를 회고했다. 오래 사무장으로 일해 오다가 이태 전에 정년 퇴직하고, 이번에 부회장을 맡은 박 요한은 '작지만 아름다운' 본당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선하고 내적으로 알차게 책임을 수행하는 신자들이다. 현 사무장 서영희 아네스도 맞장구쳤다. 다른 성당에 비해 신자수는 적는데 가족적인 분위기에 무척 감동을 받았단다. 미사 후에도 신자들이 빨리 돌아가지 않고, 사랑방과 미소방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모습에 김용민 신부는 음식을 내놓기도 하며 따뜻한 시간이 되도록 북돋우기 일쑤다. 이종분 가타리나는 그동안 직장일로 조금은 소극적이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이번에 부회장을 맡게 되었으니 능동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결심이다. 코로나로 위축된 분위기가 되살아나기를 바란다. 박 스테파노는 지난 시간, 가을에 열렸던 예술제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성경필사와 더불어 문인화, 도자기, 사진, 손뜨개 등 작품 전시회에 음악 발표회까지 더한 예술제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창원지역에는 1977년 설립된 가음동본당만 있다가, 1981년 1월 양곡본당과 반송본당이 동시에 설립되었다. 창원공단의 발전과 인구 유입으로 복음전파도 급속도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양곡성당은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4년 동안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 상가를 빌리거나 아파트 지하에서, 또는 먼저 건축한 유치원 건물 등에서 미사를 올리며 공동체를 키워 나갔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창원으로 근로자와 가족들이 대대적으로 이주했다. 8,90년대에는 양곡성당에 근로자들이 성지처럼 모여들었다. 창원공단이 번창했던 그 시절, 현대양행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교우회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움직였다. 양곡성당은 그들의 등지가 되었고 본당 사제는 지도신부가 되었으니 남녀청년들이 그곳을 메웠다. 마산과 진해와 창원을 잇는 점점 지역에서 웅달샘처럼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들게 했다.

신자들이 편안한 성당

사무실 앞 게시판에 큼직하게 적힌 '웃고 인사하고 칭찬하자'와 같이 김용민 신부는 신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해 부임하여 주일미사도 한 대 더 편성하고, 월요일 오전 미사도 마련했다. 거리두기로 침체된 신앙생활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랐다.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마음을 다하여 같이 걸어가자고 사목지침을 정했다. 작은 성당이니 초기교회처럼 사제든 신자든 함께 참여하여 청소도 하고 음식도 나누는 정이 담긴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작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으면 된다.

교구 사목 방문

일시: 9월 15일(목)
본당: 산호동/석전동

교구/본당

전국 군인신학생 피정

일시: 9월 13일(화)~16일(금) 3박 4일
장소: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

성경교육 봉사자 월례모임

일시: 9월 13일(화) 14:00
장소: 교구청

31차 청년 성령 세미나

일시: 9월 16일(금)~18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010·9113·7062, 010·8864·7067

하반기 교리교사 연수 1차

일시: 9월 18일(주일) 09:30
장소: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9월 기도모임

일시: 9월 19일(월) 13:00~15:00
장소: 상평동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기타

대구가톨릭대학교 2023 수시모집

·전국 최대 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수시 최초 합격자 전원 장학금 지급
- 인문 100만 원, 자연·예체능 150만 원
·2,556명 수용, 지역 최고 수준 기숙사
문의: 053·850·2580(입학상담)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 지원 대학 선정
·취업률 76.5% 중복권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간호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원서접수: 9월 13일(화)~17일(토)
문의: 043·270·0100~0102

암 환자를 위한 치유 기도회(청도 성모솔숲마을)

일시: 매달 3째주 토요일(11:00 미사)
미사 후 점심 기도회(15:00 마침)
지도: 박상호 신부(성모솔숲마을 창립자) 주관
피정: 효소단식 피정(3째주 목~주일) 3박 4일
30만 원(효소포함)
문의: 청도 성모솔숲마을 054·373·3955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10월 15일(토)~16일(주일)/
11월 5일(토)~6일(주일)
3박 4일- 9월 30일(금)~10월 3일(월)/
11월 10일(목)~13일(주일)
8박 9일- 9월 19일(월)~27일(화)/
10월 25일(화)~11월 2일(수)
40일: 12월 10일(토)~23년 1월 18일(수)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
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문의: 010·3551·2038

성령기도회	내 용
교 구	9월 12일은 추석 연휴로 기도회 없습니다.

거창본당 제28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태섭(마태오)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규태(프란치스코)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최민희(아녜스)
총무: 고승환(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재경분과위원장: 조철호(바오로)
기획분과위원장: 오명석(베드로)
전례분과위원장: 이승희(루치아)
복음화분과위원장: 신원성(마카엘라)
교육분과위원장: 김광국(요한금구)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명숙(요안나)
구역분과위원장: 장광자(프란치스코)
시설분과위원장: 권숙찬(그레고리오)
청소년분과위원장: 홍순희(카타리나 릿찌)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WYD)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로마에서 시작된 세계청년대회(WYD)는 전세계 150개국 이상의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 신앙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세계청년대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의 신앙을 기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정: 2023년 7월 22일(토)~8월 9일(수) 18박 19일
순례(스페인 일대), 교구대회(포르투갈 일대), 본대회(포르투갈 리스본)

지원자격: 1988~2004년생, 6차의 사전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 20명 선발

예상참가비: 450~500만 원(최대 100만 원 교구 보조)
신청: 교구 청소년국 홈페이지(<http://youth.cathms.kr>), 9월 25일(주일)까지

선발일정: 10월 15일(토) 14:00 교구청-설명회 및 면담
10월 24일(월)-참가자 확정 개별 통보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2023 WYD 공식 홈페이지: www.lisboa2023.org

제16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금) 도착본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9월 17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마 산 예 경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파크 골프 채 최고의 골프기능 특별할인 기회 NAVER에서 아리랑파크 골프채로 검색 선택 후 010-3599-0745로 연락주세요. 파크 골프 스포츠 대표 김요셉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도 055,757,9888~9
---	--	--	--

명서동본당 청소년 봉사동아리

‘모아초아’ 를 소개합니다.

찬미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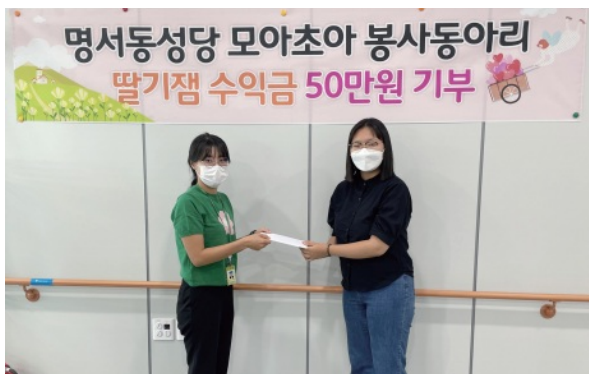
명서동본당 청소년 봉사동아리 ‘모아초아’ 회장 김가희 만나입니다. 이전까지 본당 행사는 물론 지역사회 내 행사들도 취소되는 것이 당연해지던 때를 보내면서,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생각을 조금씩 잊으면서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사랑을 조금씩 잊어가면서 지냈던 코로나 시간을 뒤로, 우리 명서동본당 중고등부는 어느 특별한 하느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기 전,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면서 명서동본당 중고등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회 활동, 교리, 여름 신앙학교 등 한동안 하지 못했던 본당 활동을 다시 준비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명서동본당 중고등부는 청소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봉사동아리를 기획하였습니다. 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 봉사 시간을 받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아초아’라는 동아리 이름을 정하고, 활동 계획도 함께 정해보며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는 활동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늘 뜻을 모아 사는 삶을 살며 자신을 태워 세상을 비취라”라는 ‘모아초아’의 뜻처럼 말입니다.

‘모아초아’ 동아리는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딸기잼을 만들어 판매하는 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밭에서 딸기를 수확하고, 수 시간 동안 직접 잼을 만들었고, 담당 신부님의 지원으로 본당에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본당의 어른분들 또한 단지 수익사업이 아니라 봉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본당 공동체의 많은 도움으로 ‘모아초아’ 동아리는 60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수익사업에 우리 학생들 사이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금 아껴서 맛있는 것도 먹자!” “일부를 기부하고 조금은 나누어 가지자!” 하지만 학생회 토의를 거치고 선생님과 신부님과 대화하면서, 봉사동아리라는 목적에 맞는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 생각하였고, 또 그것을 위해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생각에 기꺼이 기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나은 상황에서 지내며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기부처를 두고 학생회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던 중 문득 우리 지역과 본당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 특히 홀로 지내시는 독거노인들의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고, 지금 어르신들이 ‘정말 도움과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이후 지역 내 노인 복지관을 알아보았고, 본당 중고등부는 8월 10일 마산 금강노인종합복지관에 ‘모아초아’ 이름으로 6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모아초아’ 학생들은 “선행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신 성령 하느님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앙을 알지 못했다면 나에게 썼을 돈들을, 본당 활동을 하며 ‘나눔’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 홀로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고, 이 기회를 통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드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서동본당 중고등부는 주변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마음에 간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며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함을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신 본당 어른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님 사랑의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칸의 범죄(여호수아 7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지난 순례 때 우리는 예리코 성읍이 함락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곧이어 성경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연달아 소개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예리코 성읍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공략하게 된 성읍은 아이입니다. 아이 성은 베텔의 동쪽에 있는 성읍으로 예리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 성읍의 상황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도성의 백성은 그 수가 많지 않아서 2~3천 명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삼천 명을 아이 성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들을 따라가서 승리의 장면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자신만만하게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전열은 무너졌고, 아군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성의 백성들의 추격전에 밀리면서 더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이 실패 앞에서 모든 용기를 잃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이 백성의 지도자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군사력 증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원로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대책 회의를 여는 대신 주님의 궤 앞에서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완전 봉헌물에 손을 댄 범죄가 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완전 봉헌물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원수들을 맞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찾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고, 유다 지파의 아칸이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심문하자 그는 전리품이 탐이 나서 바빌론산 고급 겔옷 한 벌과 은 이백 세켈, 금 십 세켈을 취하여 자기 천막에 숨겨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탐이 나다’는 히브리어 동사 ‘하마드(חָמַד)’는 십계명의 탐을 내지 말라는 말에도 쓰인 동사입니다(탈출 20,17 참조). 그는 주님께서 완전 봉헌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전리품에 탐이 나서 그것을 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아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소들과 나귀들, 양들이 있었습니다(7,24 참조). 결국 아칸은 이 범죄로 인하여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과 함께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그의 가족들 또한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칸의 잔해 위로 돌을 던져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리하여 이곳은 아코르 골짜기 곧 불행의 골짜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잔혹하게 여겨지는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충실성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보호와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충실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각 구성원의 충실성은 민족 전체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아칸과 더불어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처벌을 받은 것은 같은 범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이자, 하느님의 말씀을 어길 때 일어날 두려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유래는 이스라엘의 금지된 계곡에 쌓인 돌무더기에 대한 전설이었는데, 여호수아기 7장에 도입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교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칸의 이야기처럼 개인의 잘못이나 부주의가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손해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봅시다.